

결사목표는 하나 “부처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 결사, 역사와 그 정신 살펴보니...

불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스스로를 정화(淨化)하는 결사(結社)를 통해 극복했다. 어쩌면 부처님의 상가(僧伽)도 그 성격을 놓고 보면 결사와 같다. 인도의 브라만이 타락하여 민중들의 외면을 받을 때 부처님이 이끄는 비구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과 함께 고행하며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며 귀하다는 가르침을 퍼 실의에 빠진 인도민중은 물론 중인계급과 국왕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부처님은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돼 있다는 결정론, 인과론을 부정하는 우연론, 보이지 않는 절대 타자에 운명을 맡기는 운명론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기 운명은 자기 스스로가 개척하며 누구나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계정정한 수행생활과 염불수행에 매진했다. 해원의 소식을 들은 전국의 불자들이 여산에 몰려들어 자연스럽게 수행공동체가 형성되었으니 후대에 이를 백련결사라 하며 이후 결사의 전범(典範)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 불교사를 보더라도 결사 외에 향도(香徒)·매향(埋香)·보(寶)·계(契)·회(會)·사(社) 등 다양한 형태의 결사 신앙운동이 일어났다. 신라에서 가장 유명한 결사는 오대산 화엄결사다. 오대산 화엄결사는 이후 화엄교학을 한국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결실을 낳았다. 고려시대는 두 차례 중요한 결사운동이 일어났으니 지눌의 정혜결사와 요세의 백련결사다. 두 결사는 지나친 불사, 승단에 대한 과도한 해태, 종파 분열, 정치세력과 유착 등 당시 불교계 타락상을 비판하며 부처님 법대로 살 것을 서원하며 출발했다. 이들은 모든 이익과 명예를 벗어던지고 산속에 들어가 철저히 수행했다.

구한말 경허선사가 호남 영남을 거쳐 가며 선원을 개설하고 수좌들과 참선 정진한 운동역시 결사의 한 형태다. 그 이전 결사가 한 사찰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과 양상은 다르지만 기존 타락한 불교, 희미해진 정법을 되살리고 철두철미한 수행에 매진한다는 점에서는 지눌의 수선결사와 다르지 않다.

지눌의 수선결사, 경허의 선수행은 해방 후 1947년 봉암사 결사로 이어졌다. 봉암사 결사 역시 정법을 회복하고 수행자 본연의 자세를 되찾고자 했던 기존 결사정신을 계승했다. 한국불교는 조선 500년과 일제를 거치며 정체성을 상실했다. 무속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법은 퇴락하고 대처가 득세하는 말법(末法)의 어둠 속에 빠졌다. 이에 경허, 만공, 용성, 한암 등 간화선 거목의 수행 전통을 이은 성철 자운, 항곡, 도우, 보경, 월산, 혜암, 법전, 성수 우봉·보문스님 등 20여명의 수좌들은 구산선문 중 한 곳이었던 문경 봉암사에 모여 청정 수행 가풍 회복의 가치를 들었다. ‘부처님 법대로’ 가치를 걸고 18개의 구제처 실천 방안인 공주규약(共住規約)을 내세웠다. 그 핵심 내용은 정법(正法) 구현, 자급자족, 솔선수범, 보시 거부, 근검절약, 참선 정진 생활화, 세속 배격이다. 낮은 곳에서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감내하며 오직 도를 구하는 데만 매진하며 중생을 구제한다는 불교의 출발과 공주규약 내용이 똑같다.

백련, 수선, 봉암사 결사 등 불교가 위기 직면할 때마다 정법구현과 수행에 매진하는 ‘승가공동체 출현’ 난관 극복

백련, 수선, 봉암사 결사 등 불교가 위기 직면할 때마다 정법구현과 수행에 매진하는 ‘승가공동체 출현’ 난관 극복

설파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정법(正法)이라고 한다. 정법에 의지하여 욕심을 버리고 청빈하게 살며 계를 지키는 것이 수행자의 삶이다. 이들을 일러 비구(比丘)라고 부른다.

불교 위기는 비구가 그 본 뜻을 잃고 타락하며 낮은 자가 아닌 높은 자가 될 때 찾아왔다. 그래서 결사는 비구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부처님 법대로’다. 인도에서 가장 강렬한 전면적 결사는 대승불교운동이다. 대승불교는 출가불교가 지나치게 현학적이고 대중 구제를 소홀히 하는 데 대한 반성으로 시작되었다. 부처님 입멸 뒤 출가자들은 교리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에 매달려 불교 본래 정신인 중생구제, 대중성을 상실했다. 이에 불탈을 보호하며 신앙을 영위하던 제가자들이 새로운 신앙운동을 일으켰으니 바로 대승불교다. 이로써 승단은 출가 2부중에서 우바새 우바이까지 확대되는 혁명적 변화를 불러오고 고립되던 불교는 일거에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는 전기를 마련한다.

○ 최초의 결사는... 인도에 이어 불교의 주요 전파지였던 중국에서 최초의 신앙결사는 동진(東晉)의 혜원(慧遠)이 주도한 백련결사다. 402년 여산 동림사의 아미타불상 앞에서 123명의 승속이 모여 서방정토 왕생을 기원하는 염불결사가 불꽃처럼 일어났다. 이 시기 중국 전역은 전란에 휩싸여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고 삶은 도탄에 빠졌다. 불교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당시 불교는 외형은 엄정 커졌지만 수행자들은 길흉화복을 점치거나,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며, 권력과 손잡고 호의호식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혜원은 전라도 파하고 타락한 불교를 바로잡기 위해 여산 동림사에 들어가 입적할 때까지 30년 넘게 지

○ ‘상월선원’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 이처럼 불교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부처님 본래 가르침, 비구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모임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다. 전임 총무원장 지승스님을 비롯하여 수좌 스님들이 결의한 상월선원 천막법당 결사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동안거를 영남 지역선원에서 나기로 했다는 한 수좌 스님은 “몇 사람의 원력과 수행이 후대에 어떤 의미로 기록될지 당대는 모른다. 다만 지금 ‘할 뿐’이다. 상월선원에 박수를 보내는 것도 원력을 세우고 결을 내닫기 때문”이라며 성원했다. 박부영 상임 논설위원 chisan@bulgyo.com



불교는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부처님 법대로’를 내걸고 정법(正法)에 의지하고 수행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찬이슬과 비바람을 맞고 고행(苦行)으로 중생구제와 지혜증득이라는 수행자 본래 정신(用)을 회복하는데 생애를 바쳤던 수행자가 있었기에 불맥(佛脈)은 오늘도 면면히 흐른다. 사진은 부처님 법을 높이 세우는 굴산사지의 당간지주 모습. 김형주 기자

“인생에 한번 뿐... 죽기를 각오했다”

■ 상월선원 지객 호산스님

‘야의 천막 90일 고행 결사’는 총무원장 소임을 내려놓은 직후 백담사 무문관 수행에 들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전 총무원장 지승스님으로부터 출발했다. 무문관을 넘어 중생과 소통하는 수행의 길, 그 방법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실천공행을 더하고자 굳혔던 다짐이다. 백척간두 전일보(百尺竿頭進一步)로 상징되는 불퇴전의 수행에 대한 나름의 방식이다. 지승스님의 각오를 듣고 가장 먼저 동참의 뜻을 밝힌 이가 호산스님(사진)이다.



19안거 수행을 이어오다 총단 소임을 맡으면서 더 이상 선방을 찾지 못해 수행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고 한국불교에 변화의 바람이 일

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호산스님은 가장 할 일이 많은 지객 소임을 자청했다. “하루 한 끼 배고픔을 달랠 정도의 음식 섭취를 하면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가며 무문관보다 더 혹독한 3개월간의 묵연 정진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총단의 총무원장까지 지낸 분이 그런 고행 정진을 한다고 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중생의 삶 속으로 나아가고자 나선 길에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었다. 결사에 임하는 각오가 엮이는 대목이다. 당초 노숙 정진을 하고자 했다. 서울역, 광화문, 한강 등 여러 장소가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결국 위례신도시 포교도량 부지가 정진장으로 정해졌다. 호산스님은 “대중이 많아지면 고려해야 할 일도 많아지는 것”이라며 “총단이 도심포교를 위해 확보한 위례신도시 포교도량 부지는 부지 확보 이후 전적이 더더 불사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면 결사 취지도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생의 삶터로 나아가는 정진이라는 상징성도 함께 담을 수 있는 점도 작용했다. 한결을 더 나

“공부 열정 불태울 수 있어 오히려 설렌다”

■ 상월선원 입승 진각스님

백양사 운문암 선원, 태안사, 상원사, 통도사 등에서 30안거를 성만한 진각스님(사진)은 100만배 기도를 두 번이나 회향했다. 특히 2003년 오대산 중대에서 공부했던 스님은 상원사 적멸보궁을 찾아가 100만배 정진을 했다. 중대 요사채에서 보공까지 왕복 40~50분 거리를 하루 세 번 오르내리며 새벽예불 때 100배, 사시에는 불공, 저녁 예불에 1000배를 올렸다. 한 겨울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적멸보궁에서 난방시설 하나 없이



기도했던 그 힘으로 스님은 이번 천막결제에 동참한다. 서리를 맞으며 달을 벗 삼아 수행하는 노천도량(霜月禪院)에서 스님은 제직원을 써놓고 들어갈 정도의 배수진을 치고 정진한다. 무문관에서 공부했던 스님은 상원사 적멸보궁을 찾아가 100만배 정진을 했다. 중대 요사채에서 보공까지 왕복 40~50분 거리를 하루 세 번 오르내리며 새벽예불 때 100배, 사시에는 불공, 저녁 예불에 1000배를 올렸다. 한 겨울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적멸보궁에서 난방시설 하나 없이

을 하고 거지들과 함께 생활하며 만행을 했다”며 천막결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천막결제 소식을 들은 신도들은 동안거 노천에서 후한을 견뎌야 하는 스님을 걱정한다. 정작 스님은 태연하다. 난방도 되지 않는 천막에서, 한 발 앞으로 추위를 견디고, 찌지 않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루에 일종식을 하며 14시간 정진하는 시간을 기다리며 스님은 오히려 “설렌다”고 말한다. “도를 깨치기 위한 공부는 생사를 뛰어넘는 것인데, 목숨을 걸고 해야 하지 않겠나”며 “천막 앞에 장작을 쌓아라. 차라리 그 자리에서 다비를 하겠다”며 농담처럼 말했다. 천막묵연결사가 알려지지 동참하고 싶다는 스님들 연락이 여럿 왔다고 한

다. “공부 위해 몸부림 치고 열정을 태우며 스스로를 시험하는 스님들이 많다”며 “깨달음에 가까워진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전례 없는 결사를 앞두고 언짢지 않을까 하는 물음에 스님은 “세상에는 여러 의견이 있지 않나”며 초연하다. 천막묵연결사가 시작되면 주변의 왜곡된 시선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은 산중에서만이 아니라 공부할 마음만 있으면 처처가 수행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심하고 고행하는 스님들 모습에서 불자들은 신심을 내고,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현경 기자 eonaldo@bulgyo.com

■ ‘상월선원 천막결사’ 어떻게 운영되나

이른바 천막묵연결사라는 이름처럼 스님들은 한겨울 내내 난방도 되지 않는 천막에서 생활하며 묵연한다. 커다란 천막 안에서 정진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전체대중이 아닌 일반인들은 정진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스님들은 하루 14시간 화두를 듣고, 행선을 한다. 또 일종식을 하고, 잠을 자며 정진한다. 하루 한 끼 공양은 사시에 한다. 백담사 무문관처럼 스님별로 도시락이 제공될 예정이다. 도시락은 천막법당에서 준비한다. 사시에 맞춰 도시락을 싸와 정해진 공간에 두면, 선방 스님들이 가져다 먹는 방식으로, 공양을 담당하는 외부인

천막에서 화두 듣고 행선하며 ‘하루 한 끼’ 도시락으로 공양 천막 밖 간이법당서 사시에불 대중들 함께 기도동참 가능해

100명 규모의 간이법당이 마련된다. 법당에는 구례 화엄사에서 모셔온 고려석 불이 봉안되는데, 동안거결제 일주일전인 오는 11월4일경 이운식이 봉행된다. 이곳에 상주하는 스님 외에도 중앙총회 의원 환풍스님이 매일 사시에불을 올린다고 한다. 또 선방 대중공양을 오는 스님들과 불자들도 기도 정진할 수 있다. 천막법당에서 사시에불을 올리게 될 중앙총회의원 환풍스님(남양주 묘적사 주지)은 “스님들이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발심해서 후한과 배고픔도 마다하지 않고 정진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지만 밖에서라도 결사가 잘 화행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할 것”이라며 “불자들의 말뚝

신심을 일으키는 계기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교와 스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총도감 해일스님은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결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스님은 “무문관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면 천막묵연결사는 무문관과 대중수행을 결합한 전례 없는 수행결사로 나 자신을 살피는 동시에 대중과 화합해야 하고 또 추위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사부대중이 기도에 동참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수행결사에 참여한 대중 스님들을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상월선원(霜月禪院)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더 주목받은 위례신도시 포교용지. 총단이 포교거점도량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4년 매입했다.